

Ⅹ. 스웨덴의 시민교육과 평생교육

1. 스웨덴의 시민교육

시민교육이란?

급격히 변천하는 사회에 시민들로 하여금 적응할 수 있는 능력과 발전적인 민주사회를 형성하기 위하여 훌륭한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기르는데 목적을 둔 교육이다. 시민교육의 형태는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공통된 점은 정규적인 학교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한 청소년, 성인들을 위하여 공민학교 형태로 시작되었다. 교육의 대상자는 청소년, 노동자, 성인으로서 사회 하위 계층의 시민을 대상으로 기초교육의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전체 시민을 위한 기초 교육 과정으로 발전하였다. 시민교육은 시민의 사고와 행동을 가치지향적인 방향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교육, 시민들로 하여금 교육적인 사고의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으로서 시민의 사회화를 위한 교육이다.

1) 스웨덴 시민교육의 역사적 배경

스웨덴에서는 1842년에 국민학교(folkskola) 교육법이 제정된 이후 초등학교제도는 계속 확장 발전하여 나갔다. 그러나 당시 국민학교 교육의 목표는 인격 형성에 필요한 기초적 지식과 훈련에 국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본 소양 교육을 마친 후 학업을 계속하려는 사람들을 위해 1868년에 덴마크의 제도를 모방하여 최초의 성인고등학교(folkhögskola)를 설립하였다.

성인고등학교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강의실과 도서관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속속 건립되어 갔으나 범국민적 교육이 시작된 것은 1912년 노동자 교육연맹(ABF)이 발족한 이후로서, 수많은 조직과 단체들이 이 기구에 가입하였다. 또한, 금주 운동 단체와 소비자 연합 단체 같은 국민운동 기관도 국민 교육 사업에 커다란 역할을 담당하였다.

1800년대 초기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라틴어가 거의 지배적으로 사용되었으며, 실생활에 유용한 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통합하여 일반중등학교로 개편하였는데, 여기서 학생들은 라틴계와 자연계로 분류되어 수업을 받았다(1904년부터는 고등학교 이전 과정에서 라틴어 교육이 폐지됨). 1950년

에는 의회의 결정으로 새 교육법이 공포되었는데, 이에 따라 국민학교와 중학교를 통합하여 단일학교(enhetsskola)로 만들고, 의무 교육 기간도 9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교육 내용도 여러 전문 과목으로 다양하게 나누었다.

옵살라(Uppsala)와 룬드(Lund)에 있던 대학(大學)들도 새로운 학문을 위한 전문 교육 기관으로 정비, 확장되어 갔는데, 그중 가장 오래된 것은 스톡홀름의 의학 연구소인 카롤린스카(Karolinska)연구소'(1810)이다. 또, 일반의 기부금으로 1877년에는 스톡홀름에, 1891년에는 예테보리(Göteborg)에 각각 대학 규모의 전문 교육 기관이 설치됨으로써 곧 대학교와 동등한 지위(地位)를 가지게 되었다.

2) 스웨덴 시민교육의 구성

(1) Folkhögskola

폴크훅스쿨라(Folkhogskola)는 성인고등교육기관으로 고등학교 진학을 위한 성인반, 대학교 진학을 위한 성인반, 그리고 문화, 예술, 체육계통의 특화교육 등 성인학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868년 처음으로 세운 세 학교를 시작으로 1800년대 말과 1900년대 초에 불기 시작한 음주운동, 노동운동, 여성참정권 운동, 종교자유운동에 힘입어 다양한 사회운동을 확산시킬 목적으로 성인고등교육기관인 폴크훅스쿨라가 빠르게 정착되었다. 2010년에는 전국적으로 150개의 학교가 설립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전국적으로 대도시(31%), 중소도시 (18%), 그리고 농촌지역(51%) 등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국민, 그리고 문화, 예술, 체육, 여가 등 다양한 특화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 국민들의 교육기관으로 자리잡아 국민의 지식, 기술, 여가에 대한 관심을 충족시켜주는 중요한 시민교육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농촌, 임어촌의 작은 마을에 고등성인교육기관이 집중적으로 위치해 있기 때문에 도시와 농촌간의 교육의 격차를 해소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최연혁, 2010).

운영단체에 따른 구분에 보듯이 성인고등교육기관의 2/3가 사회운동의 연장선상에서 학교를 설립한 경우가 1/3을 차지하고 있다. 그만큼 사회운동은 스웨덴 사회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에 일기 시작한 노동운동, 농촌운동, 시민의식개혁의 운동이 여전히 국민들의 사회의식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가 학생수는 1990년대 중반 이후 2005년 현재까지 15만 명에 이르고 있고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한 때 1990년 초 20만 명까지 늘어난 적이 있었지만 당시

는 유동성위기와 대량실업사태로 인한 일시적 증가현상으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많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 이후 줄었다기 보다는 원래의 수준으로 원상복귀 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Regerings Proposition, 2005).

(2) 학습동아리 단체(Studiesförbund, Association for Circle Studies)¹⁾

<표 제-1> 전국단위 대표적 학습동아리 수

	학습동아리	문화행사	시민교육활동	합계
ABF	84482	1588	8762	154832
Medborgarskolan	29269	20217	4519	54005
SV	54 403	29025	5985	89413
Bilda	10826	28144	5948	44918
Sensus	20324	39379	8071	67774
Ibn Rushd*				
Studieförbundet	42729	34590	5570	82889
NBV	24355	14977	11565	50897

* Ibn Rushd는 2008년부터 독립 단체로 분리되어 활동보고서가 제출되지 못했다.

(3) 민간시민교육단체

Medborgarskolan, SV, NBV 등은 가장 대표적 민간시민교육단체로 꼽힌다. ABF는 1912년 사민당, 소비자단체(KF), 그리고 노조 (LO)와 연계해 노동자교육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태동했으며 점차 정치사상적 색깔을 배제하고, 현재 국민교육기관의 성격을 띠고 있다. 한 예로 Medborgarskolan의 경우, 1940년 보수당의 교육기관으로 태동했지만 현재는 정당과 관계없이 다양한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SV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최연혁, 2010).

(4) 대학수준의 일반인 교육(Folkuniversitet)

순수 교육을 목적으로 대학교육 수준의 일반인 교육을 지향. 설립된 이후 줄곧 연어교육에 특화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경영학, 미학, 그리고 수학, 과학 등 다양한 교

1) von Essen, Johan och Pelle Aberg(2009)

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Folkuniversitet은 위에서 다른 8개의 학습동아리의 차원보다는 고급교육기관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최연혁, 2010).

(5) 사회운동, 시민의식 개혁

NBV와 Studieförbundet을 들 수 있다. 두 단체는 1900년대 초에 전개되었던 금주절제운동과 4H농촌운동의 정신을 사회에 지속적으로 전파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설립된 이후 최근 들어서도 계속 새롭게 활동영역을 넓혀가면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표 Ⅻ-2> 학생의 시민지식 수준별 소수민족의 권리에 대한 태도 점수(2009)

(괄호 안의 수치는 표준오차)

	1단계 미만	1단계	2단계	3단계
한국	40.3(1.2)	44.8(0.5)	48.3(0.3)	51.3(0.2)
스웨덴	44.9(0.1)	47.7(0.5)	51.2(0.5)	56.0(0.4)
핀란드	40.8(1.8)	43.5(0.7)	45.6(0.4)	49.8(0.3)
덴마크	44.8(1.6)	45.6(0.6)	46.5(0.5)	50.2(0.4)
이탈리아	45.4(0.5)	46.9(0.4)	48.8(0.4)	51.5(0.3)
네덜란드	44.6(1.2)	45.9(0.8)	47.7(0.8)	49.2(0.9)
슬로바키아	45.5(0.8)	46.5(0.4)	47.9(0.4)	50.8(0.4)
체코	43.6(0.5)	44.7(0.3)	46.4(0.3)	49.1(0.4)
멕시코	48.3(0.4)	51.6(0.3)	55.0(0.2)	58.4(0.3)
칠레	49.8(0.5)	58.8(0.4)	56.0(0.3)	58.4(0.3)
뉴질랜드	45.6(0.9)	48.2(0.6)	51.5(0.5)	56.1(0.4)
OECD 평균	45.0(0.2)	47.3(0.1)	49.6(0.1)	52.9(0.1)

위의 통계자료에서 볼 수 있듯, 스웨덴 국민들의 소수민족 권리에 대한 태도²⁾ 점수는 OECD 평균뿐만 아니라 타 북유럽 국가들에 비해서도 매우 높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스웨덴 정부의 다문화정책과 맞물려, 이민자들이 많은 환경에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완충장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구성원 간의 이해를 통한 협력과 상호 보완으로 사회를 발전시킬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이 힘은 시민의식

2) "1단계 미만"에 제시된 수치는 시민지식검사에서 1단계 미만을 받은 이들 중 8학년 학생의 시민참여(예, 소수민족에 대한 동등한 권리 옹호 표현)에 대한 평균 점수임. 마찬가지로, "1단계", "2단계", "3단계" 항에 제시된 수치는 시민지식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를 받은 이들 중 학생의 사회참여에 대한 평균점수를 나타냄.

의 고양을 강조하는 스웨덴의 시민교육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6) 종교

Bilda, Sensus, Ibn, Rushd가 이에 속하며 교회 안에서 문화, 예술, 인도적 지원 등의 활발한 활동을 펴고 있으나 전체 시민사회에 속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2. 스웨덴의 평생교육

평생교육이란?

유아에서 시작하여 노년에 이르기까지 평생에 걸친 교육.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동시에 포괄하는 개념으로,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가 평생교육의 이념 하에 교육체제를 재정립하는 과정에 있다. 평생교육이 세계적인 관점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한 활동에서 연유되었다. 평생교육의 교육이념이 정식으로 유네스코에서 채택된 것은 제3차 성인교육 국제회의(1972년, 동경에서 개최)에서였다. 이 대회에서 33개 항목으로 구성된 건의서가 받아들여졌는데, 그 중에는 “성인교육은 평생교육에 통합된 분야로 보아야 한다”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평생교육의 어원은 프랑스어 *éducation permanente*에서 연유되었으며, 그 용어는 본래 의미가 충분히 표현되기 위해서는 통합의 의미를 고려하여 *life-long integrated education*으로 번역되어야 할 것이다. 평생교육의 기본철학은 전통적 학교교육에 대한 의문에서 제기되었고, 그 이론적 틀은 사회변동, 생의 주기(週期)와 그 질적 내용 및 계속 통합교육의 세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생교육의 목적은 개인의 신체적·인격적인 성숙과 사회적·경제적·문화적인 성장 발달을 전생애를 통하여 계속시키는 데 있으며, 이러한 평생학습의 기회는 삶의 현장에서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신념에 근거하고 있다.

1) 평생교육 단계의 구분

스웨덴 교육청에서 제시한 구분에 따르면, 스웨덴의 평생교육 단계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나타낼 수 있다.

Preschool

Preschool class

Compulsory school

Upper secondary school

Adult education

Folk high schools

Higher vocational education

Universities and university colleges

모든 단계가 중요하지만, 이 8가지 과정들 중 특히 평생교육의 핵심이 되는 것은 취학 전 교육(Preschool)과 성인교육(Adult education), 직업교육(Vocational education)으로 볼 수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유아교육

스웨덴 아이들은 생후 1년까지는 보육시설에 가지 않고 부모가 육아휴직을 써서 집에서 돌본다. 최소한 만 1세까지는 부모가 직접 돌보는 것이 아이의 정서와 발달에 가장 좋다는 사회적 합의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아빠나 엄마가 경제적 부담 없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월급의 80%를 수당으로 지급한다. 스웨덴은 특히 육아 부담을 여성 혼자 짊어지지 않도록 1974년 육아휴직제도를 '부모휴가제도'로 개정, 부부 공동양육 모델을 제시했다. 480일의 육아휴직 기간 중 부부가 각각 최소 60일을 써야 하며 다 채우지 못하더라도 배우자에게 이전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남편도 반드시 최소 2개월을 휴직해서 아이를 돌보아야 한다는 뜻이다. 부부가 육아휴직을 절반씩 쓰면 월 일정액을 '성 평등 보너스' 명목으로도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은 시간 단위로 나눠 쓸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최장 8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2) 성인교육

스웨덴의 성인교육을 이해하기 위한 맥락으로서 기본적인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8세만 되면 누구나 독립적으로 생활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또 동거, 이혼 등 가정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부모가 아이의 장래를 결정하며 관리하지 않는다. 둘째, 스웨덴은 거의 모든 교육이 무상이고 학업 수당까지 주는 교육 복지 국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 진학률은 45% 정도이다.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 바로 대학에 진학하기보다는 1~2년 정도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을 경험한 후에 대학에 진학한다. 그래서 스웨덴 대학생들의 평균 연령은 세계에서 가장 높다. 셋째, 직업 간 차별이나 임금 격차가 많지 않고, 대학을 졸업한 후의 즉시적인 이익이 크지 않다. 고등학교 졸업자와 대학 졸업자 간에도 소득 수준에 큰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일류대학, 이류대학, 삼류대학 졸업자 간

에도 소득 차이가 크지 않다. 넷째, 제2의 교육 기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 고등학교 교육도 성인기가 되어 받는 경우들도 많다. 교육은 평생 교육이라는 생각이 사고 깊숙이 박혀 있다. 다섯째, 참여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시민교육이 자연스럽게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게 되었고, 학습과 평가를 별개로 보는 문화적 경향성이 존재한다.

3) 직업교육

스웨덴에서는 언제든지 원할 때 다시 학습할 수 있는 유연한 재교육 체제, 직업 현장과 학교를 오가며 생애에 걸쳐 학습할 수 있는 순환형 교육 체제를 잘 구축하고 있다 또한, 학생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고등학교의 직업교육이 학생들에게 현장 경험과 훈련을 쌓도록 도와준다. 게다가 이미 고등학교 단계에서 진학이나 전공 계열을 체계적으로 분류, 학생들이 졸업 후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이민자를 위한 직업교육을 사회 통합 및 적응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표 Ⅹ-3> 연령대별 학생 인구 비율(2010)

(단위 : %)

	3~4세	5~14세	15~19세	20~29세	30~39세	40세 이상
한국	80.2	99.7	85.9	30.2	2.0	0.5
스웨덴	92.0	98.5	86.4	36.5	13.7	2.8
핀란드	51.7	95.5	86.8	41.7	15.4	3.6
덴마크	92.3	99.1	85.0	38.4	8.1	1.5
이탈리아	94.8	99.5	83.3	21.5	3.2	0.1
네덜란드	50.1	99.5	90.7	30.0	3.0	0.8
독일	92.4	99.4	89.5	30.8	3.0	0.2
멕시코	69.4	100.0	53.8	11.9	4.0	0.8
체코	72.5	98.1	90.2	24.0	3.9	0.5
미국	59.9	96.8	81.7	25.5	6.6	1.5
OECD 평균	71.9	95.9	82.9	27.0	6.1	1.5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Long Life Learning”으로 요약되는 평생교육 지원 제도로, 스웨덴은 전 연령대에 걸쳐 다른 국가들을 상회하는 취학률을 자랑한다. 이는 단순히 수치상의 우위로만 해석될 것이 아니다. 평생에 걸친 스웨덴의 교육은 삶과 교육, 노동, 복지를 각각 분리시키지 않고 서로 조화를 이루며 일터에서 교육으로, 학습에서 직업으로의 이동이 필요에 따라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돕는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이야말로 진정한 복지를 실현 가능케 하는 북유럽 복지 모델의 뿌리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최연혁(2012) Social Welfare of Sweden.

교육학 용어사전(2009),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임언, 이영현, 최지희, 옥준필(2009), 『북유럽의 직업교육 실태 및 혁신 사례』, 한국 직업 능력 개발원

Regerings Proposition(2005)

OECD 홈페이지://www.oecd.org/edu/